

# 가. 윤석열 후보 시절의 흑역사... 지금 이웃나라들은 초비상

1) [이봉렬 in 싱가포르] 식량 무기화 되고 있는데... 한국  
식량안보지수, OECD 최하위 수준

- 민족·국제
- 이봉렬(solneum)

22.06.07 07:02 | 최종 업데이트 22.06.07 09:20

- 글씨 크게보기
- 인쇄
- 본문듣기

원고료로 응원하기

- 251
- 137
- 76

2016년 7월, 싱가포르의 한 노점 식당이 미술랭가이드 별 하나를 받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비싼 가격의 고급 음식점만 받을 수 있는 줄 알았던 미술랭 별을 밥이나 국수 위에 닭고기 살을 올려 3천원에 파는 평범한 노점이 받는 건 세계적으로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더운 나라이다 보니 집에서 음식을 조리해서 먹기 보다는 집 근처 푸드코트에서 사먹는 게 일반적인 싱가포르의 특성을 고려한 미술랭가이드의 파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미술랭 별을 받은 식당의 주 메뉴가 닭고기 요리라는 것도 싱가포르 서민 음식을 제대로 파악한 결과입니다. 밥 위에 찌거나 조리 닭고기를 얹어 나오는 치킨라이스는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국민 음식입니다. 대부분의 푸드코트마다 치킨라이스 가게가 있어서 싱가포르 서민의 한 끼 식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김치찌개나 짜장면 정도의 위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싱가포르의 치킨라이스 모습. 생닭을 요리해서 걸어 놓고 주문을 받으면 잘라서 내놓습니다. ©

이봉렬

그런데 이 미술랭 별을 받은 치킨라이스를 앞으로는 찾아보기 어려울 지도 모르겠습니다. 말레이시아가 치솟는 닭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6월 1일부터 수출을 전면 금지시켰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치솟은 사료 값이 닭 생산 원가를 올려 버린 게 닭 가격의 상승을 불러온 것입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닭고기 가격의 상한제와 생산 농가에 대한 보조금까지 지급하면서 가격을 안정화시키려 노력했으나 실패하자 수출 금지라는 초강수를 둔 것입니다.

전체 닭고기 수입량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특히 노점에서 서민들에게 내놓기 위해 필요한 생닭의 경우 거의 전량을 말레이시아산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말레이시아의 수출금지 조치는 싱가포르 식생활 자체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싱가포르는 전시 상황

닭고기는 싱가포르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육류입니다. 한국의 1인당 닭 소비량이 연간 15kg 정도인데, 싱가포르는 그 2배가 넘는 36kg입니다. 다민족 국가인 싱가포르에서 이슬람계는 돼지고기를, 인도계는 소고기를 터부시하기 때문에 닭고기에 대한 의존이 그만큼 더 높습니다.

이제껏 닭고기를 공급해 왔던 말레이시아는 싱가포르와 다리로 이어져 있는 아주 가까운 나라입니다. 생닭의 경우 말레이시아에서 산채로 트럭에 싣려 싱가포르로 수출된 후 싱가포르에서 도축 및 손질을 거쳐 시장에 바로 공급됩니다. 말레이시아가 아니면 생닭을 공급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가공을 거친 냉장 혹은 냉동 닭을 브라질과 미국 등에서 공급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 싱가포르의 한 슈퍼마켓에 닭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미리 확보해 둔 덕에 아직은 닭을 살 수 있습니다. © 이봉렬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싱가포르 정부는 태국과 협의하여 냉장 닭고기를 대량으로 수입해서 판매하고, 소매점에서 생닭 대신 냉장 닭고기를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말레이시아의 수출 금지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시장에서의 혼란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닭고기만 문제가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는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이번에는 닭고기지만 다음에는 다른 것이 될 수 있다.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인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밀 수출을 금지하고 설탕 수출량도 제한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식용유 가격이 급등하자 팜유 수출을 한 때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식량이 무기가 되었고 식품의 90%를 수입에 의존하는 싱가포르에서는 이 상황이 전시와 다르지 않습니다.





[세계식량안보지수 추이]

순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	핀란드 (82.4)	아일랜드 (82.6)	핀란드 (83.7)	핀란드 (83.8)	핀란드 (84.4)	핀란드 (84.6)	아일랜드 (84.1)	핀란드 (85.1)	핀란드 (85.3)
2	아일랜드 (81.4)	핀란드 (81.8)	아일랜드 (82.1)	아일랜드 (82.5)	아일랜드 (82.6)	아일랜드 (83.0)	핀란드 (84.0)	아일랜드 (83.8)	아일랜드 (83.8)
3	노르웨이 (79.5)	프랑스 (79.2)	오스트리아 (79.8)	오스트리아 (80.1)	스웨덴 (80.5)	스웨덴 (81.2)	스웨덴 (80.9)	노르웨이 (80.6)	네덜란드 (79.9)
4	미국 (79.0)	오스트리아 (78.9)	프랑스 (79.3)	영국 (80.1)	오스트리아 (79.6)	노르웨이 (80.3)	네덜란드 (80.2)	스웨덴 (80.5)	오스트리아 (79.4)
5	뉴질랜드 (78.7)	노르웨이 (78.7)	미국 (79.1)	프랑스 (79.6)	영국 (79.6)	네덜란드 (80.2)	노르웨이 (79.3)	네덜란드 (79.6)	체코 (78.6)
6	프랑스 (78.6)	미국 (78.6)	뉴질랜드 (78.7)	스웨덴 (79.2)	네덜란드 (79.2)	프랑스 (79.8)	영국 (79.2)	오스트리아 (78.6)	영국 (78.5)
7	오스트리아 (78.5)	네덜란드 (78.5)	영국 (78.4)	노르웨이 (79.2)	노르웨이 (78.8)	영국 (78.4)	체코 (79.0)	영국 (78.6)	스웨덴 (78.1)
8	스위스 (77.5)	덴마크 (78.5)	스웨덴 (78.4)	미국 (78.6)	미국 (79.0)	일본 (78.2)	오스트리아 (78.9)	체코 (78.5)	이스라엘 (78.0)
9	네덜란드 (77.1)	뉴질랜드 (78.2)	덴마크 (78.4)	뉴질랜드 (78.6)	프랑스 (78.5)	독일 (78.1)	일본 (78.9)	일본 (78.4)	일본 (77.9)
10	스웨덴 (77.1)	스웨덴 (78.0)	노르웨이 (78.3)	네덜란드 (78.4)	체코 (78.3)	오스트리아 (78.0)	덴마크 (78.7)	독일 (78.1)	스위스 (77.7)
11	덴마크 (76.9)	스위스 (77.3)	네덜란드 (77.9)	독일 (78.3)	뉴질랜드 (78.2)	미국 (77.9)	독일 (78.3)	이스라엘 (77.9)	미국 (77.5)
12	독일 (76.5)	독일 (77.1)	독일 (77.9)	덴마크 (78.2)	일본 (77.7)	스위스 (77.8)	스위스 (78.1)	뉴질랜드 (77.8)	캐나다 (77.2)
13	일본 (76.2)	영국 (77.0)	벨기에 (77.8)	일본 (78.0)	독일 (77.7)	덴마크 (77.7)	뉴질랜드 (78.1)	미국 (77.7)	독일 (77.0)
14	포르투갈 (76.1)	일본 (76.4)	스위스 (77.6)	체코 (77.6)	이스라엘 (77.5)	벨기에 (77.5)	미국 (77.6)	스위스 (77.6)	뉴질랜드 (77.0)
15	체코 (76.0)	포르투갈 (76.4)	체코 (77.3)	스위스 (76.8)	덴마크 (77.5)	뉴질랜드 (77.4)	포르투갈 (77.5)	덴마크 (77.4)	덴마크 (76.6)
16	이탈리아 (75.7)	체코 (76.3)	이탈리아 (77.2)	벨기에 (76.8)	스위스 (77.3)	체코 (77.3)	벨기에 (77.1)	포르투갈 (76.8)	이탈리아 (76.6)
17	벨기에 (75.6)	벨기에 (76.3)	일본 (76.2)	이탈리아 (76.5)	이탈리아 (76.8)	이탈리아 (76.3)	프랑스 (76.8)	벨기에 (76.8)	프랑스 (76.5)
18	영국 (75.1)	이탈리아 (75.5)	호주 (75.7)	호주 (76.2)	벨기에 (76.8)	이스라엘 (75.8)	호주 (76.8)	프랑스 (76.7)	노르웨이 (76.2)
19	캐나다 (74.8)	캐나다 (74.9)	폴란드 (75.5)	포르투갈 (75.9)	포르투갈 (76.7)	포르투갈 (75.5)	이스라엘 (76.7)	캐나다 (76.6)	포르투갈 (75.7)
20	스페인 (73.1)	스페인 (74.8)	포르투갈 (75.2)	이스라엘 (75.1)	호주 (76.4)	호주 (75.5)	이탈리아 (76.3)	이탈리아 (76.4)	싱가포르 (75.7)
21	이스라엘 (72.5)	폴란드 (74.0)	이스라엘 (74.9)	그리스 (74.8)	그리스 (75.2)	그리스 (75.1)	폴란드 (75.9)	싱가포르 (76.4)	벨기에 (75.2)
22	호주 (72.4)	호주 (73.7)	스페인 (74.9)	폴란드 (74.4)	스페인 (75.0)	싱가포르 (74.1)	캐나다 (75.0)	그리스 (74.8)	루마니아 (74.2)
23	싱가포르 (72.0)	싱가포르 (72.9)	그리스 (74.3)	싱가포르 (74.3)	캐나다 (74.9)	캐나다 (73.5)	싱가포르 (75.0)	폴란드 (74.2)	벨라루스 (73.8)
24	코스타리카 (71.7)	코스타리카 (72.6)	싱가포르 (74.0)	스페인 (73.9)	폴란드 (73.9)	폴란드 (73.4)	그리스 (74.9)	스페인 (73.6)	러시아 (73.7)
25	그리스 (71.5)	대한민국 (71.8)	캐나다 (73.9)	캐나다 (72.7)	싱가포르 (73.4)	스페인 (73.4)	스페인 (74.4)	벨라루스 (73.3)	폴란드 (73.5)
26	폴란드 (71.3)	이스라엘 (71.8)	대한민국 (71.5)	코스타리카 (72.0)	코스타리카 (71.8)	대한민국 (73.2)	칠레 (72.8)	호주 (73.1)	스페인 (73.4)
27	대한민국 (71.2)	그리스 (71.7)	코스타리카 (70.4)	대한민국 (71.5)	대한민국 (71.6)	벨라루스 (71.3)	대한민국 (72.5)	칠레 (73.0)	그리스 (73.0)
28	칠레 (68.5)	루웨이트 (69.5)	루웨이트 (70.2)	칠레 (69.0)	루마니아 (70.8)	우루과이 (71.2)	우루과이 (72.4)	대한민국 (72.8)	코스타리카 (72.3)
29	루웨이트 (68.4)	칠레 (68.8)	칠레 (68.4)	루마니아 (68.7)	칠레 (69.1)	칠레 (71.2)	벨라루스 (72.0)	코스타리카 (72.3)	대한민국 (72.1)
30	루마니아 (66.8)	벨라루스 (68.2)	루마니아 (67.6)	벨라루스 (68.5)	벨라루스 (68.3)	코스타리카 (70.3)	코스타리카 (71.9)	러시아 (72.1)	우루과이 (71.4)

주: 세계 30위까지 순위를 정리한 것이며, 괄호 안은 점수이고, 음영처리한 것은 아시아권 국가임